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4.(화) 17:30 배포 2026. 11. 24.(화)

전기택시 전환 활성화 위해 기후부-국토부-택시업계 맞손

- 기후부-국토부-택시업계, '택시 전동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' 체결
- 2035년 신규 택시 100% 전기차로 전환 목표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,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11월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(서울 중구 소재)에서 '택시 전동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한다.

이날 행사에는 △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, △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, △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, △차순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.

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약 23만 대에 달하는 택시를 전기차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업계가 뜻을 모아 마련된 행사다.

올해(2026년)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택시 약 22만 9천대 중에서 전기 택시는 약 3만 9천대(17%)에 이른다.

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약 3만 5천대의 택시가 신규로 등록되었는데, 협약 참여기관들은 오는 2035년까지 신규 도입하는 모든 택시를 전기차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.

정부는 전기 택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추가 지원금에 더해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도입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고, 충전 시설(인프라) 확충 등을 통해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. 택시 업계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전기택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전환 참여 확산을 유도하는 등 전환 노력을 적극 추진한다.

택시는 개인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5~7배*에 달해,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매우 크다. 아울러 내연기관차 대비 소음과 진동이 적어, 전기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친환경 운송수단(모빌리티)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'달리는 홍보관' 역할도 기대된다.

* 택시 업계에 따르면 택시의 평균 주행거리는 일반 승용차 대비 약 5.8배(개인택시)에서 7.3배(법인택시) 수준임

이날 협약식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"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완성하려면 전환 수요가 큰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"이라며, "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 수요의 전동화를 조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"라고 밝힐 예정이다.

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"전기택시로의 전환은 국민께 더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드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판을 드넓히는 일"이라며, "높은 차량 가격과 긴 충전시간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찾고,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"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붙임 1. 행사 계획(안).
2. 협약서 전문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	책임자	과 장	박정철 (044-201-6880)
		담당자	사무관	조희목 (044-201-6881)
	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남균 (044-201-3823)
		담당자	팀 장	강한우 (044-201-4770)
			사무관	이상훈 (044-201-475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**행사 계획(안)**

□ 추진 배경

○ **택시**는 개인 승용차 대비 차령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로 전환 시 **온실가스 감축** 및 **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** 大

○ 택시의 **전동화 촉진** 기반 마련을 위한 **기후부·국토부·택시업계** 간 업무협약(MOU) 추진

□ 행사 개요(안)

○ **(행사명) 택시 전동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**

○ **(일시/장소)** '26. 11. 24(화), 17:30~18:00 / 국토발전전시관(서울시 중구)

○ **(협약기관)** ▲기후부, ▲국토부, ▲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(법인) ▲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(개인)

< 협약기관별 역할(안) >

■ (**기후부**) 택시 전동화 촉진 관련 정책적·재정적 지원*, 전기차 안전성 홍보

* (예) 차고지 등 급속충전시설 확충,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지원 다각화

■ (**국토부**) 택시 전동화 촉진 관련 정책적·재정적 지원 노력 등

■ (**택시업계**) 전기택시 관련 인식 제고 및 홍보 등을 통한 택시 전동화 추진

□ 시간 일정(안)

시 간		주 요 내 용
17:30~17:35	5′	• 개회 선언 및 참석자 소개
17:35~17:45	10′	• 인사 말씀
17:45~17:50	5′	• 업무협약 내용 및 취지 설명
17:50~17:55	5′	• 협약서 서명
17:55~18:00	5′	• 기념 촬영

※ 시간 일정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붙임 2 **협약서 전문**

「택시 전동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」

기후에너지환경부, 국토교통부,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(이하 '협약당사자')는 택시의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며,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약(이하 '본 협약'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택시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당사자 간 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목표 및 협력분야) 협약당사자는 '35년까지 신규 구매·임차 대상 택시가 원칙적으로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**기후에너지환경부**는 택시의 **전기차 전환** 촉진 및 **충전 편의 제고**를 위한 정책을 발굴·추진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.

2. **국토교통부**는 택시의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**정책을 발굴·추진**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.

3. **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**는 **전기택시**에 **최적화된 운영체계**를 마련하고, 전기택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 **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**을 **선도**한다.

4. **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**는 전기택시의 **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방식** 등 개인택시 운전자의 **전기택시에 대한 인식 제고 및** 전기차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.

제3조(상호 협력 및 성실의무) 협약당사자는 협약 이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한편 상호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, 주기적으로 택시의 전기차 전환 촉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.

제4조(효력 및 협약기간)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, 협약기간 동안 어느 일방이 제6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.

제5조(비밀유지)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본 협약 이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협약의 해지) ① 협약당사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어느 일방의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약 해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11월 24일

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 성 환

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장관 홍 지 선

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 복 규

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차 순 선